

너밖에 없다

편법과 불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기술이다. 지혜다. 처세다.

현수막처럼 시대에 걸어 호도하고 있다.

아 아 고봉밥에 티스푼이 들어낸 밥풀이여

우체통 안 길 잃은 지갑이 잠든 오후2시

견습 후배의 호기심이 오토바이를 타면

용서치 못할 부정의 관계를 낳고

불륜이 자라 부패를 낳는다.

바른 사회란 때마다 밥을 먹듯

때마다 바른 마음이 필요하다.

마치 농부의 지극정성에

질리지 않은 벼를 생산하는 것처럼

청렴의 역사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회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듯

이제나 저제나 마중물처럼

작은 불꽃 모아 모닥불 피우는 너